

全州李氏敬寧君派世德錄序

五百年 옛날에 우리 先祖이신 敬寧君께서 太宗恭靖大왕의 第一男으로 誕生하시니 道學과 德行이 卓越하시니 世宗大왕 師傅로서 國政을 輔弼하시니 國使로서 累次中國에 出入하시니 國威를 宣揚하시니 大勳功은 歷史가 證左하시니와 그 後孫이 繁衍昌大하시니 代代孫孫이 名公巨卿과 忠孝節義의 文章道德이 繼承하시니 家門을 빛내 고 後世에 龜鑑이 될수 있는 事實이 不知其數로되 世代之 趨移에 따라 아는 者가 드물고 數百年來의 事蹟을 世世傳傳하시니 어려우니라 이는 文獻이 없는 까닭이니 이어 恥恨스러우니 이니리오 배움의 有無와 恒心의 有無가 人間處世의 善惡을 左右하시니 道義가 頹廢한오늘 이 世代에 處하시니 忠孝家門에 래어나 先賢의 遺訓을 承襲한 後孫이라면 어떻게 境遇에서라도 그 言行이 殊異함을 볼수 있나니 이는 某某家門의 後裔라는 矜持를 자랑할수 있는 東方禮儀國民의 模範이라 余 道義再建을 切實히느끼나머지 去甲辰春에

我宗中の門長이신秉文大父를 비롯하여 有志僉宗에發議하고 京
根賢宗과合心協力하여 一年有餘에 國內各宗中을巡回歴訪하여
先代로부터現孫에이르기까지 行蹟을調査采輯하고 族譜외家乘과
國乘野史를 널리參考하여 宗中大方과도問議하여 可及的알기쉬
은方法으로編纂하고 上下二卷으로分冊하여 名曰 全州李氏敬寧
君派世德錄이라하다 將登梓할새 僉宗이 請余一言弁之어늘
固辭不獲하고 強把筆하노니 嗚呼라 綱常이倒地하야 滅倫敗常
이莫此爲甚한此際에 爲子孫者 一開卷則 先代之事行이 瞭然在
目하야 孝悌之心이 油然而生矣리니 凡我同宗은 互相勸勉하야
위로 先代의遺風을繼承하고 아래로 子子孫孫이 본 받게하
면 이어저吾門의一大幸事가아나리요 끝으로 此事業推進에協贊
하여주신 僉宗에게深甚한謝意를表하나이다

光復後二十年乙巳春三月上澣 敬寧君十七代孫掌永謹書

序

夫子 欲言夏殷禮나 杞宋之文獻이不足함을恨하였으니 文獻之於
家國에俱不可無也나 惟我十八代祖考齊簡公은 鍾生王庭하시 爲
世宗師傅하시 克贊堯舜之治하시고 奉使中國에不辱君命하시며
世祖初에 標然退修하시니 其出處之正은 求諸古人에 罕見其儔
而寔爲分派之祖也나 天道福善하시 爲府君後孫者 繁衍昌盛하시야
名公巨卿나 道學文章나 蔭仕顯達나 綱常褒揚之清이指不勝屈而
自府君以下로 迄于今히 繼世行錄을 與其隨派各藏而爲之私寶로
不若合宗全璧之爲美矣나 於是에 宗議齊發하시야 以掌永京根으로
互相編輯하시고 互相掌財하시니 何其誠力之如是耶나 但事巨力綿하시야
遷延者久矣나 事有古略今詳之不同이니 然이나 一事一行이 豈
非府君之蔭蔭歟나 合成二卷하시야 名之曰 敬寧君派世德錄이라하시

고 俾一根으로 爲之弁文하시니 如余不肖로 何敢承當이리오 然
이나 長老가 旣愛之하시니 敢不從命이리오 鉞梓告功에 輒一
奉覽하시니 瞭然若執領見末하고 百川이朝宗于海也리 爲敬寧君後
承者百世之下에 孝悌之心이 不覺油然而自生矣리니 是吾家之文獻
也리 盍相金櫃而傳諸이

光復後二十年乙巳春三月上澣에 後孫一根謹識